

강원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(<http://cksm.kangwon.ac.kr>)

원주 무릉박물관 소장

<A1> 1671년 정월 장인원(張仁元) 토지매매명문(土地賣買明文)

康熙拾年辛亥正月二十六日。張仁元處明文。

右明文爲臥乎事叱段。矣要用所致。以*a

多加里大字員畚。柒斗落只庫乙。折價*b木陸拾疋。交易依數捧上爲遣。

同人妻*c。永永放賣爲去乎。執持鎮長耕食爲乎矣。

後次矣子孫族類等爭望隅則*d去等。

此明文內覓如告官卞正事。

畚主。幼學張雲樂[着名]。

訂。同姓六寸張之嶺。

筆執。幼學田禹正[着名]。

a. ‘以’는 한문이 아니고 이두토이므로 ‘要用所致’에 붙어야 한다.

b. ‘折價’는 ‘값을 치다’, ‘값을 매기다’의 뜻이다.

c. 글자로 볼 때 1행의 ‘處’를 참고하면 ‘妻’가 아니라 ‘處’가 분명하다.

d. 문맥과 1690년 문서 6행 4자를 참고하면 ‘則’이 아니라 ‘有’로 판단된다. ‘則’으로 본 것은 ‘去等’에 이끌렸을 가능성이 높다.

<A2>

康熙拾年辛亥正月二十六日 張仁元處 明文

右明文/爲臥乎事叱段 /矣 要用所致/以

多加里大字員畚 柒斗落只 /庫乙 折價 木陸拾疋 交易 依數/捧上爲遣

同人處 永永放賣/爲去乎 執持鎮長耕食/爲乎矣

後次 /矣 子孫族類等 爭望隅/有去等

此明文內 覓/如 告官卞正事

畚主 幼學 張雲樂[着名]。

訂 同姓六寸 張之嶺。

筆執 幼學 田禹正[着名]。

<A3>

경희 십년(1671) 신해년 1월26일 장인원에게 하는 명문

이 명문하는 일은 저의 要用所致로

多加里 大字員 논 7 마지기 곳을 환산하여 목 60필로 매매하여 수에 따라 받고

위의 사람에게 영원히 방해하였으니 가지고 오랫동안 경식하되

뒤에 저의 자손친척 등이 다투고 원망하는 구석이 있거든

이 명문 내용에서 찾은 대로 관에 고하여 시비를 따져서 바로잡을 일이다.

<B1> 1671년 7월 장인원(張仁元) 토지매매명문(土地賣買明文)

康熙拾年辛亥七月初三日。兩班張仁元前茂火明文。

右明文爲臥乎{事叱}。如*a矣力*b1達此大凶。矣力*b2及妻子等皆[][][](餓)[]

丁寧乙仍于。同生弟處買得。管洞員。白字。牟田。壹石落只內上[](邊)

陸田捌斗落只應*c。折價木拾伍正。交易依數捧上爲遣。

同宅前。永永放賣爲去乎。執持鎮長耕食爲乎矣。

後次矣子孫族類等雜談爲去等。

此持*d文內覓如告官卞正事。

田主。私奴應景[左寸]。

訂。鹽于奴正鶴[左寸]。

筆執。幼學田禹正[着名]。

- a. ‘如’가 아니라 ‘段’이다. ‘段’의 초서자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서 중 1672년, 1673년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. ‘事叱’에 ‘{ }’를 두른 것은 문제가 있어서 취한 조치로 보이는데 ‘段’으로 보게 되면 ‘事叱段’이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.
- b1, 2. ‘身’의 초서자를 ‘力’으로 잘못 파악하였다.
- c. ‘應’을 합자로 파악하고 있으나 문맥으로 볼 때 ‘庫(=廬/곳)’와 ‘乙’을 따로 쓴 것으로 보고 ‘庫/명사+乙/대격조사’로 파악해야 한다.
- d. ‘持’는 ‘明’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.

<B2>

康熙拾年辛亥七月初三日 兩班 張仁元前茂火 明文。

右明文/爲臥乎事叱段 /矣身 達此大凶 /矣身 及 妻子等 皆[][][](餓)[]

丁寧¹⁾/乙仍于 同生弟處 買得 管洞員 白字 牟田 壹 /石落只 內上[](邊)

陸田 捌 斗落只/ 庫乙 折價 木拾伍正 交易 依數捧上/爲遣

同宅前 永永放賣/爲去乎 執持鎮長耕食/爲乎矣

後次 /矣 子孫族類等 雜談/爲去等

此明文內 覓 /如 告官卞正事

<B3>

경희 십년(1671) 신해년 7월 초3일 양반 장인원에게 하는 명문

이 명문하는 일은 저의 몸이 이 대흥을 만나 저의 몸 및 처자들이 모두 …끓주려

간곡함을 말미암아 동생에게 사서 얻은 管洞員 白字 牟田 1 섬지기 內上[](邊) 곳을 환산하여 목 60필로 매매하여 수에 따라 받고

6田 8마지기 곳을 환산하여 木 15필에 매매하고 수에 따라 받고

위의 집에 영원히 방매하였으니 가지고 오랫동안 경식하되

뒤의 저의 자손친척 등이 잡스러운 말을 하거든

이 명문 내용에서 찾은 대로 관에 고하여 시비를 따져서 바로잡을 일이다.

1) 1. 대하는 태도가 친절함. 2. 충고하거나 알리는 태도가 매우 간곡함. <<표준국어대사전>>

<C1> 1672년 장인원(張仁元) 토지매매명문(土地賣買明文)

康熙拾壹年壬子三月初三日。幼學張仁元茂火明文。

右明文爲*a救荒爲要。以

大谷善字員畚。參斗落只一ト五束庫乙。折價常木肆拾疋。細布一疋。鹽十斗。牟肆斗。交易爲良依數準討捧上爲遣。

同人妻*b。永永放賣爲去乎。執持鎮長耕■(食)■

■#c子孫族■*d中雜談是*e去乙等。

持*f此*g文告官卞正事。

畚主。進士田九畎[着名]。

- 다른 문서들을 참고하면 ‘臥乎事叱段’이 빠져 있다. 글자가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는 1673년 문서의 5행을 들 수 있다.
- 글자를 확인해 보면, ‘妻’가 아니라 ‘處’임을 확인할 수 있다. ‘處’의 초서자는 1671년 3행, 1674년 1행, 4행 등에서 확인된다.
- 모두 6자가 들어갈 자리로 보인다. 다른 문서를 참고하고 글자의 남은 부분을 고려하면 처음 네 글자는 ‘食爲乎矣’으로 추정된다. 뒤의 두 글자는 다소 불분명한데, ‘此後’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본다. 다른 문서(1671년 1월, 7월, 1973년)에는 ‘後此’로 되어 있다.
- 다른 문서를 참고하고 글자의 남은 부분을 고려하면 ‘類’로 추정된다.(<그림 1> 참조)
- 글자를 확인해 보면 ‘是’가 아니라 ‘爲’임을 알 수 있다.
- 글자를 확인해 보면 ‘持’보다는 ‘此’로 판단된다.
- 글자를 확인해 보면 ‘此’보다는 ‘明’으로 판단된다. c와 d의 판단 결과를 적용하면, ‘此明文’을 지배하는 동사가 발견되지 않는다. 필사 과정에서 동사가 빠진 듯하다.



<그림 1> ‘類’ 초서

<C2>

康熙拾壹年壬子三月初三日 幼學張仁元/茂火 明文

右明文/爲(臥乎事叱段) 救荒/爲 要/以

大谷善字員畚 參斗落只一ト五束 /庫乙 折價 常木肆拾疋 細布一疋 鹽十斗 牟肆斗 交易/爲良依數準討 /捧上爲遣

同人處 永永放賣/爲去乎 執持鎮長耕/食爲乎矣

■子孫族■中 雜談/爲去乙等

此明文告官卞正事

畚主 進士田九畎[着名]

<C3>

경희 11년(1672) 壬子년 3월 초3일 幼學 張仁元에게 하는 明文

이 명문하는 일은 救荒할 요량으로

大谷善字員 논 3마지기 1짐 5줌 곳을 환산하여 常木 40필 細布 1필, 소금 10말, 모리 4말
에 매매하고 수에 따라 (準討) 받고

위의 사람에게 영원히 放賣하니 가지고 오랫동안 경식하되

뒤에 자손친척 등이 잡스러운 말을 하거든

이 명문을 가지고 관에 고하여 시비를 따져서 바로잡을 일

<D1> 1673년 장인원(張仁元) 토지매매명문(土地賣買明文)

康熙拾貳年癸丑四月初五日。幼學張仁元(處)明文。

右明文爲臥乎{事叱}段。要用所致。以

道所洞蓋字員。麻田一斗落只四束庫乙。折價租一石。依數捧上爲遣。

同人處。永永放賣爲去乎。執持鎮長耕食爲乎矣。

後此矣子孫族類等雜談隅有去等。

依此文告官卞正事。

田主。寡婦張氏[手掌]。

筆執。田景洞[着名]。

<D2>

康熙拾貳年癸丑四月初五日 幼學 張仁元(處) 明文

右明文/爲臥乎事叱段 要用所致/以

道所洞蓋字員 麻田一斗落只四束 /庫乙 折價 租一石 依數 /捧上爲遣

同人處 永永放賣/爲去乎 執持鎮長耕食/爲乎矣

後此 /矣 子孫族類等 雜談隅/有去等

依此文 告官卞正事

田主 寡婦張氏[手掌]

筆執 田景洞[着名]

<D3>

경희 12년(1673) 계축 4월 초5일 幼學 張仁元에게 하는 明文

이 명문하는 일은 요긴하게 쓸 所致로

道所동 蓋字원 삼밭 1마지기 4줌 곳을 환산하여 租 1섬을 수에 따라 받고

위의 사람에게 영원히 放賣하니 가지고 오랫동안 경식하되

뒤에 저의 자손친척 등이 잡스러운 말을 하는 구석이 있거든

이 문서에 의거하여 관에 고하여 시비를 따져서 바로잡을 일

<E1> 1674년 장인원(張仁元) 토지매매명문(土地賣買明文)

康熙拾參年四月初五日。張仁元處明文。

右明文爲爲臥事叱段*a。要用所致。以

方字員南城畚。伍斗落只庫。伍負陸束*b乙。折價木綿三拾伍疋。■(交)易爲良準討爲遣。

同人處。永永放賣。耕食■(爲)乎矣。

後此子孫族類中雜談隅有去乙等。

持此文告官卞正事。

畚主。忠衛安斯業[着名]。

訂。幼學田珏[着名]。

筆執。幼學田景淵[着名]。

a. ‘爲臥乎事叱段’의 오기로 보인다.

b. ‘庫伍負陸束’에서 ‘庫’와 ‘束’ 뒤에 각각 ‘丨’와 ‘丨’을 넣어 ‘庫’가 ‘束’ 뒤에 와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였다.

<E2>

康熙拾參年四月初五日 張仁元處 明文

右明文/爲臥乎事叱段 要用所致/以

方字員南城畚 伍斗落只 伍負陸束 /庫乙 折價 木綿三拾伍疋 (交)易/爲良 準討爲遣

同人處 永永放賣 耕食/(爲)乎矣

後此 子孫族類中 雜談隅 /有去乙等

持此文 告官卞正事

畚主 忠衛安斯業[着名]

訂 幼學田珏[着名]

筆執 幼學田景淵[着名]

<E3>

康熙拾參年四月初五日 張仁元에게 하는 明文

이 명문하는 일은 요긴하게 쓸 소치로

方字원 南城 밭 5마지기 5짐 5줌 곳을 환상하여 木綿 30필에 매매하여 準討하고

위의 사람에게 영원히 放賣하니 경식하되

뒤에 자손친척 중에 잡스러운 말을 하는 구석이 있거든

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시비를 따져서 바로잡을 일

<F1> 1690년 장인원(張仁元) 염분매매명문(鹽盆賣買明文)

康熙貳拾玖年庚午三月二十二日。幼學張仁元前明文。

右明文爲乎事段*a。矣亦要用所致。以

營鹽盆壹水。折價爲良雌牛壹頭。正租貳石合正木拾疋。依數捧上爲遣。

同宅前。永永放賣爲去乎。執持鎮長煮食爲乎矣。

幸有子孫族中雜談爲去等。

持此文告官卞正事。

盆主。金云京[着名]。

訂人。金應立。

筆執。幼學田洪疇[着名]。

a. ‘爲臥乎事段’에서 ‘臥’가 빠졌다.

b. 일반적이라면 주격조사 ‘亦’ 앞에 ‘身’이 있어야 한다.

<F2>

[참고]

<G> 1700년 장봉익(張鵬翼) 토지매매명문(土地賣買明文)

康熙三十九年庚辰十二月廿一日。幼學張鵬翼處明文。
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。要用所致。以同人處買得是。在通
引川員萬字田。陸斗落只庫乙。折價錢文貳拾兩。交易依數
捧上爲遣。同人處。卜數并以。永永放賣爲去乎。執持鎮長
耕食爲乎矣。日後幸有子孫中雜談是去乙等。持此文告
官卞正事。

田主。幼學田景泗[着名]。

訂。幼學田洪疇[着名]。

筆執。幼學田敏杞[着名]。

康熙拾年辛亥正月二十六日。張仁元處明文。

康熙拾年辛亥七月初三日。兩班張仁元前茂火明文。

康熙拾壹年壬子三月初三日。幼學張仁元茂火明文。

康熙拾貳年癸丑四月初五日。幼學張仁元(處)明文。

康熙拾參年四月初五日。張仁元處明文。

康熙貳拾玖年庚午三月二十二日。幼學張仁元前明文。

右明文爲臥乎事叱段。矣要用所致。以

右明文爲臥乎{事叱}。如矣力達此大凶。矣力及妻子等皆(餓)(

右明文爲救荒爲要。以

右明文爲臥乎{事叱}段。要用所致。以

右明文爲爲臥事叱段。要用所致。以

右明文爲乎事段。矣亦要用所致。以

多加里大字員畚。柒斗落只庫乙。折價木陸拾疋。交易依數捧上爲遣。

丁寧乙仍于。同生弟處買得。管洞員。白字。牟田。壹石落只內上(邊)

大谷善字員畚。參斗落只一卜五束庫乙。折價常木肆拾疋。細布一疋。鹽十斗。牟肆斗。交易爲良依數準討捧上爲遣。

道所洞蓋字員。麻田一斗落只四束庫乙。折價租一石。依數捧上爲遣。

方字員南城畚。伍斗落只庫。伍負陸束乙。折價木綿三拾伍疋。(交)易爲良準討爲遣。

營鹽盆壹水。折價爲良雌牛壹頭。正租貳石合正木拾疋。依數捧上爲遣。

同人妻。永永放賣爲去乎。執持鎮長耕食爲乎矣。

同宅前。永永放賣爲去乎。執持鎮長耕食爲乎矣。

同人妻。永永放賣爲去乎。執持鎮長耕(食)(

同人處。永永放賣爲去乎。執持鎮長耕食爲乎矣。

同人處。永永放賣。耕食(爲)乎矣。

同宅前。永永放賣爲去乎。執持鎮長煮食爲乎矣。

後次矣子孫族類等爭望隅則去等。

後次矣子孫族類等雜談爲去等。

(子孫族)中雜談是去乙等。

後此矣子孫族類等雜談隅有去等。

後此子孫族類中雜談隅有去乙等。

幸有子孫族中雜談爲去等。

此明文內覓如告官卞正事。

此持文內覓如告官卞正事。

持此文告官卞正事。

依此文告官卞正事。

持此文告官卞正事。

持此文告官卞正事。

畚主。幼學張雲樂[着名]。

田主。私奴應景[左寸]。

畚主。進士田九睽[着名]。

田主。寡婦張氏[手掌]。

畚主。忠衛安斯業[着名]。

盆主。金云京[着名]。

訂。同姓六寸張之嶺。

訂。鹽于奴正鶴[左寸]。

——

——

訂。幼學田珏[着名]。

訂人。金應立。

筆執。幼學田禹正[着名]。

筆執。幼學田禹正[着名]。

——

筆執。田景洞[着名]。

筆執。幼學田景淵[着名]。

筆執。幼學田洪疇[着名]。

1678년 장봉익(張鵬翼) 토지매매명문(土地賣買明文)

康■(熙)拾柒年戊子三月二十三日。幼學張鵬翼前明文。
右明文爲臥{乎叱}事段。吾矣要用所致。以矣亦長兄金世澤處
買得。敢字員田拾斗落只庫乙。折價則錢文貳拾肆兩。交
易依數捧上爲遣。同田庫乙。同宅處。亦中本明文并以。永
永放賣爲去乎。日後良中某過是乃更謂雜爲去等。持此
明文以告官卞正事。
田主。驛吏金世江[着名]。
訂人。驛吏金世鶴[着名]。
筆執。同生弟金世弘[着名]。

金性甲(2013),「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研究」,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.